

**“하나님의 나라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사우디 교회, 지하서 비밀리 예배하며 성장해**



이슬람의 발상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회가 지하에서 비밀리에 예배하면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지난 23일 전했다.

교회 개척과 기독교 제자 양육 사역을 지원하는 FMI(Forgotten Missionaries International)의 브루스 앨런은 조슈아 프로젝트의 통계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인 증가율은 세계 평균보다 약 65% 더 높다”면서 “정부가 복음에 대해 폐쇄적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 절대 군주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슬림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면 법에 따라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무슬림이다. 이에 비무슬림은 지하에서 비밀리에 종교를 실천해야 하며, 차별과 체포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에 FMI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앨런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규모의 지하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곁에서 이슬람의 발상지와 같은 전략적 장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세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 예정인 FMI 팀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유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앨런은 “그곳은 어려운 곳이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국민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했다. 앨런은 “사우디 인구의 약 30%는 외국인이다. 그들은 사우디에서 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왔다. 기독교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창의적이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마가복음 4:30-32)**

하나님, 마치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도자를 보내사 겨자씨와 같은 지하교회가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붙들게 하소서. 교회가 차별과 체포의 위협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 외국인 노동자와 많은 영혼의 그늘이 되고 열방의 백성들이 깃드는 축복의 통로 되어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이스라엘 북부·요르단·시리아에서 규모 5.2 지진 발생

이스라엘 중북부와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 국가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13일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소(GFZ)는 지진이 10km(6.21 마일)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12일 밤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요르단과 시리아를 강타했다고 전했다. GFZ는 지진의 규모를 5.46으로 보고했다가 몇 분 후 규모를 하향 조정했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SANA)은 지진의 진원지가 시리아 도시 하마 인근이라고 밝혔다.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으나, 레바논 전역의 주민들도 지진을 감지했다. 3주 전 사해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감지되었고, 3월에는 규모 3.8의 지진이 감지됐다. 레바논에서 사역 중인 정바울 선교사는 “이러한 시기에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사회적 재난 등으로 매우 어수선하다”며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 안전과 불안을 제거해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구합니다”라며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베드로전서 4:7-8)**

하나님,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에 있을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지켜주소서. 지진뿐 아니라 전쟁과 여러 나라들의 관계에 얽혀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몸 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여 소망이 주께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 입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주를 보게 하사 나라와 민족들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 ▲ 방글라데시, 교도소 폭동으로 12명 사망·수백 명 탈옥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과도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최근 혼란을 틈타 2개 교도소에서 폭동이 벌어져 1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AF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대규모 소요 사태부터 따지면 이미 4개 교도소에서 1천 명이 넘는 수감자가 탈출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카심푸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이곳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살인범 등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이다. 수감자들은 철근 막대 등을 이용해 교도관을 공격했고, 교도관들은 총을 쏘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 6명이 사망했고 2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옥에 성공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자,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 노조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파업을 선언하며 현장 복귀를 거부했고, 시민들이 직접 방범순찰대를 조직해 치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히브리서 3:1-2)**

하나님, 반정부 시위로 인해 총리가 퇴진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선 혼란을 틈타 교도소 폭동까지 벌어져 수백 명이 탈옥하여 어지럽고 불안정한 방글라데시를 긍휼히 여기소서. 경찰의 보호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이때,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이 속히 바로잡힐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그의 성품에 참여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여 구원 얻은 영혼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9세 여아 결혼 합법화 개정안에 국민들 반발**



이라크 의회가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여성의 주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개인 신분법 개정안(Personal Status Law)을 제안해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 뉴스맥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일 이라크 전역의 최소 7개 주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발 시위가 계획됐다.

현재 이라크 법은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부 및 종교 간 결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를 대폭 변경해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에게 전적

인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시아파 이슬람 율법 자파리를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여아는 9세, 남아는 15세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규에는 또한 최저 1시간 정도만 지속될 수 있는 임시 결혼인 ‘쾌락 결혼’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평가들은 이 조항이 매춘과 성노예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남성들이 결혼 동의,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라크의 기존 법적 기준 대신 전통적인 시아파 또는 수니파 이슬람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 4일 이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인권 운동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원들은 시아파 이슬람의 급진적인 성직자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부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의 의회 소식통은 시아파 세력이 법안 통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 우리와 협상 중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인권 운동가들과 15명 이상의 여성 의원으로 구성된 연합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반대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문제나 외부의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종교적, 전문적, 사회적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이라크 가정을 보호하려는 진심어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라크에서 아동 결혼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이라크 여아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미등록 결혼의 22%가 14세 미만 소녀와 관련된 것이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로마서 6:12-13)**

하나님,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임시 결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육체의 쾌락과 탐욕을 채우려는 이라크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보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슬람법에 숨어 어린 영혼들을 짓밟으며 정욕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합리화하려는 법 제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몸의 사욕을 쫓는 어둠의 길에서 돌아서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 예수교회가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 기도로 함께 싸워 주의 공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땅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그리스, 대형 산불 비상에 EU 지원 요청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비상이 걸린 그리스가 화재 진화를 위해 유럽연합(EU)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외신을 인용해 전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가 소방 장비와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으며, 스페인, 키프로스, 튀르키예도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3시께 아테네에서 북쪽의 바르나바스 마을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현재 아테네 중심부에서 약 14km 떨어진 브릴리시아까지 접근한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700여 명, 소방차 190대, 살수 비행기 33대를 동원해 이틀째 진화 중이다. 화재 지역 인근의 25곳 마을 주민은 대피해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민 13명이 연기 흡입,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시편 57:1)**

하나님, 강풍으로 빠르게 퍼진 대형 산불로 인해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위태롭고 급박한 그리스를 다스려 주십시오. 무섭게 타오르는 화마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큰불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외침으로 목마른 자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 ▲ 미국 전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 성 착취 위험에 처한 어린이 구출활동 지속

팀 티보 재단은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 설립자이자 회장인 팀 티보는 성명을 통해 “올해 캠페인을 알려지지 않고(Unknown), 끝나지 않았다(Unfinished)라고 칭한 이유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는 수십만 명의 소년, 소녀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신원 확인과 구조를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한 이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한 어린이들을 구출하고, 법 집행기관의 훈련과 기술을 강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새로운 희생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팀 티보 재단은 2010년부터 활동했으며, 세계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믿음, 희망, 사랑을 가져다주는 많은 대의들을 지지해 왔다. 이 캠페인은 실시된 지 2년째다. 지난해에는 26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800여 명의 아동 성 착취 피해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파트너와 법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수백 명을 구조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2-14)**

하나님, 전 세계 성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구출하고 캠페인으로 이를 알려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친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의 섬김을 통해 어둠 속에 가려져 절망 가운데 있는 어린 영혼들을 속히 구출하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에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시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행하여 아이들을 착취하고 짓밟는 자들을 빛으로 드러내 꾸짖어 주십시오. 이 영적 전쟁 앞에 성도들이 깨어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기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최악의 산사태 현장에서 성경배포하는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최악의 참사 현장에서도 묵묵히 현지어로 된 성경을 배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미국 기독교연론 월드(WORLD)는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아담 보이드(Adam Boyd)의 선교팀이 최근 최악의 산사태를 겪은 암발리 마을 주민들에게 현지어로 된 신약성경을 배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푸아뉴기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인접하고 있다. 지난 5월 산악 고지대에 위치한 암발리 지역에서 최악의 산사태로 약 2,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월드에 따르면 보이드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엥가족의 이미(Imi) 마을에 살면서 현지 엥가어(Engan)로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고 있다.

그는 원래 암발리 마을이 위치한 지역인 물리타카(Mulitaka)에서 7월 초에 성경을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산사태로 일정이 미뤄지며 7월 말에야 현지어 성경책과 성경녹음본을 배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선교 일정이 통째로 미뤄질 만큼 당시 산사태 참사는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5월 24일 새벽에 암발리 마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 산사태로 인해 150채의 집과 주민들이 매몰되었으며, 사망자 중 다수가 1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이 참사로 약 1,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사태 이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발굴작업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참사 현장은 험한 산지에 위치해 있어 중장비를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지 주민들은 문화적인 이유로 중장비 사용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재발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산사태 피해 외에도 부족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엥가주에서는 부족들 간 충돌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치안이 악화되어 구호품 전달이 어려워졌다. 또한, 제임스 마라페 총리에 대한 야당의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총리는 법정 공방에서 승리하며 위기를 넘기는 등 리더십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이드 선교사는 복음 전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봤다”며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19-20)**

하나님, 최악의 산사태 이후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오랜 부족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에 주께서 참된 왕으로 좌정하사 화평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보이드의 선교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더욱 힘있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 인도, 여자 수련의 성폭행 살해에 의사 30만 명 파업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여성 수련의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가운데, 약 30만 명의 인도 의사들이 12일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고 뉴시스가 CNN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콜카타의 의대병원에서 상처와 성폭행 흔적이 있는 여성 수련의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여러 주의 의료연합단체들은 12일 법원이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보호위원회 설립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선택적 서비스 제공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수련의총연합의 사르베시 판데이 사무총장은 “전국에서 약 30만 명의 의사들이 시위에 동참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의학협회의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 의사의 75%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잠언 21:3,21)**

하나님, 여성 수련의가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폭력과 위협에 직면한 의료인 보호를 촉구하는 의료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공정한 수사와 법 제정으로 의료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파업으로 인해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 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여!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인도에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의 인자를 따라 살며 생명과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 ▲ 나이지리아, 민간인 30명 학살당해...기독교인 박해·폭력 확산

지난주 강도들이 나이지리아 베누에주의 아이티 마을을 공격해 최소 3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주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은 나이지리아 북부 전역에서 발생하는 박해의 불안한 패턴과 일치한다. 캐나다 순교자의소리의 그렉 머셀만은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 나이지리아 40개의 기독교 마을에서 238명의 기독교인이 풀라니족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풀라니족 영토를 넘어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과 국경을 넘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과 온건 무슬림은 취약한 표적이 되고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 아이시스(ISIS-이슬람국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를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되는 이슬람 칼리프 국가로 세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박해 속에서도 나이지리아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고 머셀만은 전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5,37)**

하나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풀라니족 영토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중함을 주께 고합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멈추지 않는 자들과 악한 배후 사탄을 꾸짖어 주십시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더욱 복음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박해나 위험이나 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기는 교회임을 모두가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슬림들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사 거짓된 신을 버리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